

묘청의 사회정치사상

지 일 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력사에 나오는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40권 111페이지)

묘청(?-1135년)은 고려시기인 1135년에 일어난 서경폭동(묘청의 란)의 주도적인물의 한사람이다.

묘청의 란은 서경량반들과 개경량반들사이의 단순한 권력싸움인것이 아니라 사대세력과 반사대세력사이의 심각한 대결과정이었다.

그는 서경량반들과 인민들을 폭동에 결기시키는 과정에 일련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을 제기하였다.

묘청의 사회정치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민족고유의 사상인 선인사상을 내세울데 대한 사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적인 인간을 선인으로 내세우고 숭배하는 전통적인 사상이 존재하였다. 고조선시기에 발생한 선인사상은 애국주의사상이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삼국시기, 고려시기와 그 이후시기에도 시대적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계승되어왔다. 그 전형적실례의 하나가 묘청의 《8성》신앙이다.

묘청의 《8성》신앙은 선인으로 불리우는 8명의 신을 내세우고 그에 대한 숭배를 통하여 민족의 안녕과 부흥을 기원하는 종교신앙이다. 묘청의 《8성》신앙은 불교적외피를 쓰고 있으나 여기에는 선인사상이 반영되어있다. 묘청은 《8성》신앙에 선인사상을 반영함으로써 민족고유의 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였다.

묘청의 《8성》신앙에 선인사상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은 우선 민족의 성지들과 원시조를 신격화하고 선인으로 내세우며 숭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려사》에는 《8성》(8명의 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8성이란 첫째는 호국백두악태백선인인바 실체는 문수보살이고 둘째는 룡위악록통존자인바 실체는 석가불이며 셋째는 월성선인인바 실체는 대변천신이고 넷째는 구려평양선인인바 실체는 연등불이며 다섯째는 구려목멩선인인바 실체는 비파시불이고 여섯째는 송악진주거사인바 실체는 금강색보살이며 일곱째는 중성악선인인바 실체는 룡차천왕이고 여덟째는 두악천녀인바 실체는 부동우파이다.》(《고려사》 권127 렬전 40 묘청)

보는바와 같이 《호국백두악태백선인》, 《룡위악록통존자》, 《구려평양선인》 등 선인으로 불리우는 8신은 모두 백두산, 평양을 비롯한 민족의 성지들을 신격화한것이다.

원래 선인은 초자연적인 신적존재가 아니라 고상한 도덕과 뛰어난 무예, 건장한 체력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며 선인사상도 그 어떤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재한 인물을 숭배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볼 때 고대의 선인과 《8성》의 선인은 내용상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민족고유의 숭배대상을 선인으로 내세운데서는 공통적이다.

선인사상에는 조국산천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애족적인 지향과 의지가 반영되어있으며 그것은 민족의 원시조 단군을 비롯하여 민족앞에 크게 공헌한 인물들을 선인으로 숭배한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선인사상은 종교적세계관의 영향밑에 신비적인 외피를 쓰고있으나 그 상징적의미와 거기에 담겨진 진보적요소는 련련히 이어져왔을뿐아니라 보다 풍부화되었다.

묘청의 《8성》신앙 역시 그러한 계승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8성》신앙의 숭배대상들은 비록 신적존재들이지만 모두 민족의 력사와 업적이 깃든 성지들과 련관되어있다.

《구려평양선인》이나 《송악진주거사》 등은 민족국가인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 평양, 고려의 수도 개경(개성)을 신격화한것이며 다른 신들도 역시 민족적색채가 짙은 우리 나라 고유의 신들이다.

더우기 《8성》의 맨 첫자리에 있는 《호국백두악태백선인》은 조종의 산 백두산을 가리켰다.

민족사의 발상지인 백두산은 조선의 상징이며 따라서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곧 자기 민족에 대한 숭상이고 사랑이었다.

조종의 산, 백두산을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적존재로 삼고 첫째가는 숭배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은 고려시기 백두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여기고 백두산의 존재를 나라의 번영과 일치시켜보는 관념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고려인민들은 백두산에 대한 숭상을 통하여 애국정신을 배양하였으며 진보적사상가들과 무관들은 백두산을 등대로 보국개척의 의지를 무르익혔다. 《호국백두악태백선인》이야말로 《8성》신앙의 민족성을 뚜렷이 확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묘청이 8신의 실체를 부처나 보살로 정의한것은 당시 불교가 널리 지배하고 묘청자신이 불교승려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나 불교의 외피는 쓰고있지만 《8성》신앙은 본질에 있어서 선인사상의 계승이며 고유한 민족신앙이라고 할수 있다.

묘청의 《8성》신앙에 선인사상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은 또한 이 신앙의 호국적특성과 일련의 무신론적경향에서 찾아볼수 있다.

《8성》신앙에서 8신은 단순한 신비적존재인것이 아니라 모두 호국신들이며 그에 대한 숭상은 나라의 흥망과 잇닿아있다. 묘청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 신앙을 성인의 법이며 나라에 리익을 주고 국운을 연장하는 술이라고 인정하면서 왕에게 8성에 제사를 지낼것을 청원하였다.

선인을 숭배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것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국가의 전통적인 제도로 관례화되어왔다.

팔관(대체로 매해 음력 11월 15일을 계기로 왕궁안에 립시 건물을 지어놓고 왕과 왕태자, 대신들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여 하늘에 비는 미신행사, 중들도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불교적색채를 일정하게 띠고있다.), 연등(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자기의 소원을 비는 미신행사,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있었다.)과 같은 미신적인 행사를 국가적인 의식으로 거행하여온 고려봉건국가는 이를 국가보존의 필수적요소로 중시하였고 애국지사들은 그

에 의거하여 외세의존과 사대굴종의 사상적경향을 배격하였다.

이 신앙의 호국적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것은 민족적, 사회적모순이 매우 격화되었던 990년대초였다.

당시 거란의 침략과 관련하여 조정안에서는 화평과 항전을 주장하는 두 파의 의견상이가 조성되었는데 그것은 사상적으로는 투항분자들의 사대주의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진보세력의 애국주의사상과의 대립이었다.

당시 사대세력은 유교에 의거하여 서경이북의 땅을 떼주고 거란과 화평할것을 주장하였고 진보세력은 이를 적극 반대하여나섰다. 대표적으로 리지백은 왕이 연등, 팔관 등 고려국가의 전통적인 민속행사를 폐지한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부활시켜 호국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고 유교식행사는 외국의 법으로서 폐지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대계몽사상가의 한사람인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유교의 신하들이 외적을 물리칠 계책은 추호만큼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떼는 매국의 계기로 국왕을 권하는고로 리지백의 이 체의는 첫째로, 유신의 유약을 격렬히 규탄하고 둘째로, 랑, 불 두가를 위하여 울분을 토하고 셋째로, 국풍파를 대표하여 중화숭배를 질책함이니 여기서 랑, 불 두가의 국풍파들이 유교에 대한 불평의 성숙함이 이미 오래되었음을 볼수 있다. 이뒤로 조정신하의 건론자가 군사를 일으켜 북벌하여 압록강이북의 옛 강토를 회복함을 력창하고 유가는 반드시 사대주의를 주장하고 따라서 그 정책은 비루한 언사와 두려운 페로 대국을 섬기여 평화로 나라를 보존함을 력창하여 피차 반대의 위치에서 항행하였던것이다.》(《단재 신채호전집》 조선사연구초)

묘청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반거란전쟁때와 류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국란이 닥쳐오자 일시 잠잠해졌던 굴욕적인 화평론자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었으며 지배층의 머리속에 사대의식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묘청과 그 일파는 민족고유의 전통관례에 철저히 의거한 정치를 주장하고 그 실현방도로서 선인숭배사상의 보급을 적극 내세웠다.(《고려사》 권127 렬전 40 묘청)

이것은 묘청의 《8성》신앙에 선인사상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8성》신앙에는 일련의 무신론적요소도 들어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려시기의 선인은 신적존재로서뿐아니라 현실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도 있었다.

《8성》신앙의 제창자이며 보급자인 묘청자신이 이른바 성인(선인)으로 숭상되었으며 그의 언행까지도 신성화되었던것이다. 묘청의 생존시기에 국가의 전통적인 민속행사의 회복과 존화풍조의 배척을 주장하는 진보적량반세력들은 묘청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내세우면서 《묘청은 성인이요, 백수한도 그 다음가는 성인이니 국가의 일을 일일이 자문한 후에 시행하고 그의 의견을 허심하게 접수한다면 정사에서 성과를 거두며 국가의 태평을 보존할것이다.》(우와 같은 책)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봉건지배층에게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저 한다면 서경의 세 성인(묘청, 백수한, 정지상)을 내놓고는 함께 일할자가 없다고 건의하면서 묘청의 신앙과 사상을 국가정책의 기초로 삼을것을 제의하였다.

《8성》신앙자체는 초자연적인 신에 의하여 우주만물의 변화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좌우된다고 보는 신비적견해에 바탕을 두고있지만 묘청과 같은 현실적인물을 선인으로 숭배

하는 무신론적관념이 존재하게 된것은 고대 선인사상의 영향에 의한것이였다.

고대 선인사상에는 현실속에서 삶을 개척하려는 무신론적지향이 깃들어있다.

선인은 현실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며 그것을 현실속에서 실현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이상적인간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선인왕검》이라고 하면서 단군을 선인으로 내세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명백히 알수 있다.

고대 선인사상의 현실주의적관점에서 볼 때 묘청과 같이 실재한 인물을 선인으로 숭상하고 그의 리념을 《성인의 법》, 《호국의 도》로 신성화한 무신론적경향은 선인사상의 무신론적성격이 고려시기에도 일정하게 계승되어왔음을 보여주고있다.

《8성》신앙은 민족적성격이 뚜렷한 우리 나라 고유의 신앙이지만 불교나 지리도참설 등 종교미신적인 관념과의 련관속에서 제기된것으로 하여 신비적, 종교적성격을 면할수 없었으며 더우기 묘청일파가 말하는 《호국》의 옳바른 지침으로 될수 없었다.

그러나 묘청의 《8성》신앙은 당시의 조건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진보적인 철학사상발전에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묘청의 사회정치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반사대주의사상이다.

12세기초 금나라의 침략위협이 조성되고 봉건지배층내에서 굴욕적이고 투항적인 사대의외교론이 대두하던 시기에 나온 묘청의 반사대주의사상은 인민들의 애국적지향과 지배계급내의 진보적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묘청의 반사대주의사상은 우선 《건원칭제》(년호를 제정하고 황제칭호를 쓴다는 의미)설에서 찾아볼수 있다.

묘청은 큰 나라에 대한 사대의교를 반대하고 《건원칭제》하여 나라의 존엄을 높일것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 주변국가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금나라는 1126년에 고려봉건정부에 《형제의 관계》를 버리고 《군신의 관계》를 맺을것을 강요하였다.

외세의 강박에 굴종하는가 아니면 나라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처하여 봉건정부안에서는 사대파와 반사대파간의 대립이 생겨났다.

유교에 물젖은 개경집권세력은 《금나라가 이전에는 작은 나라로서 료나라와 우리 나라를 섬겼지만 지금은 갑자기 번창하여 료나라와 송나라를 없애버린 뒤로 정치가 잘되고 군사가 강하여 날로 강대해질뿐아니라 우리의 국경과 린접하고있으니 형식상 섬기지 않을수 없으며 또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것은 옛날 제왕이 취한 도리이니 우선 사신을 보내여 레빙하여야 한다.》(《고려사》 권15 세가 인종1 병오 4년 신묘)고 하면서 사대의교를 제창하였다. 그들은 저들의 《이소사대》관점이 백성을 안착시키고 전쟁을 방지할수 있는 묘책으로 된다고 력설하면서 사대의교의 일환으로 금나라에 신하의 자세를 취하고 제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으며 금나라의 년호를 사용할것을 요구하였다.

《묘청의 란》이 진압된 후에 김부식을 위수로 하는 유교사대파들의 립장에 완전히 기울어진 인종왕은 《제왕의 덕에는 겸손함이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로자는 말하기를 <한 나라 광무는 신하들이 글을 올릴 때는 성 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신하들이 왕을 추존함에 있어서 과도한 호칭을 쓰고있으니 도리어 매우 합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일체 상소문이나 공문서들에 신성제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려사》

권16 세가 인종2 무오 16년 임오)라는 조서를 내리었다. 사대파의 매국적인 견해는 진보적량반계층들속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묘청과 그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량반계층들은 대외관계에서 금나라에 굴종할것을 제창하는 개경집권세력의 사대외교론을 비판하고 그들의 립장과는 반대로 황제국으로서 고려의 당당한 위력을 내외에 떨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년호를 제정하는것은 왕을 높이 받들려는 마음에서 출발한것이다. 우리 왕조에서 태조, 광종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려사》 권96 렬전9 윤관)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년호를 쓰고 금나라에 신하의 례를 차리며 굴종할것이 아니라 선조의 풍습을 따라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고 황제칭호를 씌으로써 고려의 위엄을 과시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묘청과 그 일파의 《건원칭제》설은 당시의 환경에서 볼 때 외세의존과 사대굴종을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반사대주의적이며 애국적인 견해였다.

묘청의 반사대주의사상은 또한 《서경천도》설에서 찾아볼수 있다.

대외정책문제에서 반사대주의적립장을 견지하여온 묘청일파는 금나라의 침입을 막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봉건국가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서경(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묘청은 평양이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지역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평양을 수도로 정하고 《건원칭제》하여 대국으로서의 위풍을 세운다면 반드시 금나라가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서경림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인데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옮겨앉으면 천하를 병탄할수 있으며 금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것이며 36개 나라들이 모두 복종하게 될것이다.》(《고려사》 권127 렬전40 묘청)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시기에 만연하였던 음양지리도참설을 리용하여 《수도(개경)의 운수는 이미 쇠진하고 궁궐은 다 타버렸다. 서경은 왕기가 있으니 마땅히 옮겨 수도로 삼아야 한다.》, 《수도(개경)의 지세가 쇠진하였으므로 하늘이 재화를 내려서 궁궐이 타버렸으니 자주 서경을 순행하여 재앙을 가시고 복을 얻어 무궁한 왕업을 누려야 한다.》(우와 같은 책)고 적극 주장하였다. 묘청일파의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서경에 왕궁이 새로 건설되고 왕의 서경순행이 빈번해지자 개경집권세력은 권력야욕으로부터 서경천도를 반대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그들은 《묘청, 백수한 등은 갖은 간악한 모략을 다하고있으며 황당한 말로 민심을 현혹케 하고있다.》(우와 같은 책)고 하면서 묘청일파를 비방하였으며 묘청을 제거할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서경천도문제를 둘러싸고 서경량반세력과 개경량반세력사이에 첨예한 정치적갈등이 존재하였다는것은 《폐하는 음양의 지당한 말을 믿고 도참의 비기를 고려하여 대화의 궁전을 창건하여 천자의 수도를 본받아 저희들이 ... 수도를 옮길것을 기대하였더니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향토를 그리워하면서 천도를 반대할뿐 아니라 나라에 공헌이 되는 일까지 방해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고 한 묘청일파의 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서경을 고려국가의 수도로 정하자는 묘청의 주장에는 왕을 손아귀에 넣고 정권을 장악하자는 서경량반세력의 의도가 밀바탕에 깔려있는 지배계급내부의 권력분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사대주의와 반사대주의간의 사상적대립도 반영되어있다.

묘청의 《서경천도》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 평양을 수도로 삼고 강성을 떨치였던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민족의 정통으로, 정치의 표본으로 내세운 진보적지향과 잇닿아있다. 다시말하여 《서경천도》론과 그와 밀착되어있는 《진원칭제》론에는 지난날 외세에 대한 사대굴종을 반대하고 강한 국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과시하여온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정치방식을 계승하여 국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려는 애국적지향이 반영되어있다.

당시 개경집권세력은 신라정통설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당나라에 사대굴종하여 그와 손잡고 주변동족국가들을 멸망시키고 봉건정권을 유지하였던 신라왕조를 고려국가의 정통으로 보면서 그에 토대하여 사대주의적관점을 변호하였으며 민족의 력사까지도 신라를 중심으로 외곡되게 서술하였다.

사대파의 거두였던 김부식이 쓴 력사책 《삼국사기》는 신라를 정통으로 하는 사대주의적관점에서 씌여진것이다. 근대사상가인 신채호는 이에 대하여 《대개 고려 초엽부터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진출하여 북부령토를 회복하자는 화랑의 무사가 일파가 되고 사대를 국시로 삼아 압록강이내의 편안을 주장하는 유교도가 일파가 되어 두 파가 논쟁을 벌리어 대치한지 수백년만에 중 묘청이 화랑의 사상에다가 음양가의 미신을 보태어 평양에 거병하여 북벌을 실행하려다가 유교도의 김부식에게 패하고 부식이 이에 그 사대주의를 근본하여 <삼국사기>를 지은것이다.》(《단재 신채호전집》상 조선상고사)고 명백히 주장하였다.

이것은 묘청의 《서경천도》론이 반사대주의적립장을 반영한 진보적인 견해임을 말하여준다.

묘청의 사회정치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무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이다.

당시 금나라의 정치적, 군사적압력에 의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심히 위협당하고있던 력사적조건에서 강화와 무력대결에 관한 문제는 봉건정부내에서 정치의 초점이였고 동시에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강화와 군사적대결 두 문제가 이 시기 정치의 기본론의의 대상이 되었다는것은 《서녀진이 남으로는 송나라를 침공하고 북으로는 료나라를 멸망시켜 인구가 많아진데다 강토도 넓어졌다. 생각컨대 우리 나라는 그들과 린접하고있는지라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하고 혹은 군사를 훈련하여 방비대책을 취하려고도 생각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점을 치니 신이여, 해결책을 명시하라.》(《고려사》 권15 세가 인종1 병모 4년 3월 을미)고한 제사기도문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김부식을 비롯한 사대주의자들은 유교의 《이소사대》(작은것으로서 큰것을 섬긴다는 의미)관점에 서서 《오랑캐나라에 대하여 굴복하고 섬기는것》이 《국가를 보존하는 좋은 계책》이며 군사를 일으켜 전쟁의 사달을 만들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여 봉건국가의 안정과 백성들의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고려사》 권97 렬전 10 김부식)

그렇지만 묘청과 그의 일파는 오랑캐의 침략적기도는 레빙(손님으로서의 레절을 지

키는것)과 같은 외교적인 회유책이나 쓴다고 하여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며 사대굴종적인 강화체결로는 국가를 태평하게 할수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오로지 국방을 강화하고 군사적위엄으로 외세를 다스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킬것을 주장하였다.

군사적힘에 의지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령토를 고수하려는 반사대파의 애국적립장은 북벌론에서 보다 명백히 발현되었다.

고구려를 민족의 정통으로 내세운 묘청일파는 봉건왕조의 운명과 정권의 안전에만 급급하던 사대세력의 근시안적인 사고와는 달리 이 시기를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면서 북벌을 단행하여 금나라의 침략적기도를 시초에 근절하고 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할것을 강경히 제기하였다.

묘청일파에 속한 무관 최봉심은 《일미가 호언장담하기를 나라에서 장사 1 000명만 주면 금나라에 들어가 왕을 사로잡아다 바치겠다고까지 하였다.》(《고려사》 권16 세가 인종2 신해 9년 9월 정유)고 하였다.

《건원칭제》설, 《서경천도》설, 무력대결사상으로 엮어진 묘청의 사회정치적견해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나라의 번영을 지향한 애국적인 사상이었다.

그의 애국주의사상은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에 기초하고있다.

백두산을 비롯한 민족의 성지들을 신성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것이라든가 고구려를 민족의 정통으로 내세우고 그를 표본으로 국가태평의 방도를 제기한것,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제도를 중시한것 등에는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 조국의 찬란하고 우수한 력사와 반침략투쟁전통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반영되어있다.

자기것에 대한 애착, 자기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묘청의 사회정치적견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광범한 대중과 《선진》량반계층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묘청의 사상은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묘청의 사상이 일정하게 애국주의적성격을 띠고있지만 그의 애국주의는 봉건적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였으며 그가 지향한 나라도 《진보적인》량반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봉건국가였다. 이러한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묘청의 사회정치사상은 인민들의 리익을 진정으로 대변할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반침략투쟁으로 옳바로 추동할수 없었다.

실마리어 《건원칭제》설, 《서경천도》설